

[제53회 호남예술제 심사평]

재능 뛰어나 우열 가리기 힘들어

성악 (초등) 김미옥



올해 초등부 성악부문의 자신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가사도 정확하게 전달되는 등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져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특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었으며, 3~4학년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였다.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에게 맞는 곡을 선택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으나, 일부 반주자들의 불필요한 몸동작은 음악에 집중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됐다. 무대에서 반주자는 선생님이 아닌 독창자와 호흡을 같이하는 연주자가 되어야 한다. <광주대 교수>

서울 학생들에 비해 뒤지지 않아

성악 (중·고) 윤현주



올해 호남예술제는 참가자들의 뛰어난 연주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마음이 뿌듯했다. 더불어 성악을 전공하는 서울과 지방 학생들 수준 차가 해를 거듭 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도 느꼈다. 특히 고등부 남학생들의 실력이 두드러지게 향상됐다. 몇몇 학생들은 성악 기법이나 음악성에 있어서 대학생 못지 않게 성숙한 면모를 보여줬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큰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해 자연스러운 발성에서 벗어나는 등 무리한 발성을 시도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울대 교수>

남학생들 수준 높은 기량 '뿌듯'

피아노 (초등) 김혜경



이번 참가자들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크게 양호한 편이었다. 해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올해 역시 향상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가 고른 수준을 보여준 데 반해 특별히 뛰어난 학생이 드물어 최고상을 선별하는 데 고심하였다.

최고상을 수상한 학생을 비롯해, 다른 어느 해에 비해 남학생들이 수준 높은 기량을 보인 점은 굉장히 환영할만하다.

끝으로 아이들을 경연장에 데려온 학부모들의 진지한 관심 태도에 감사드립니다. <조선대 교수>

대부분 곡 흐름 타지 못해 아쉬움

피아노 (중·고) 서영화



이번 피아노부문 중·고등부 참가자들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음악적 가능성이 엿보인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곡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템포·박자·리듬조차 정확하지 않아 좋은 연주가 되지 못했다.

연주의 기본이 되는 일정한 템포와 정확한 박자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트로놈을 사용해 연습하는 것이 좋다. 또 터치에 관한 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손가락·손목·팔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난 뒤 기교적인 연주를 해야 한다. <조선대 교수>

우리의 정서와 장단의 멋 지켜야

한국무용 정은혜



초등부 전통과 창작의 경우 페르토리예 신경써야한다. 살풀이춤 같은 정서는 이른 감이 있다. 소고춤, 장고춤, 꼭두각시춤 등 밝고 신나는 춤, 흥과 리듬감이 넘치는 춤들이 많이 지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군무의 경우 공간 구성과 조형미가 살아나는 다양한 구성을 위한 노력이 있는 팀도 있었지만 그저 똑같은 춤을 밀러다니면서 추는 군무는 안타까웠다.

한국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의 정서와 장단의 멋, 호흡을 지키며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남대 교수>

참가자 줄어 분위기 침체 아쉬워

현대무용 이정희



광주는 예향의 도시이면서 우리나라 무용의 밀거름이 되었던 곳으로 많은 무용가들을 배출했다. 하지만 참가자 수도 적고 예전에 비해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

기술·체력·체격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특별하지는 못했다. 고등부 군무 중 수퍼야고는 체력이 좋았고 안무도 세련됐다. 광주예술고는 많은 인원을 참가시켰으며 기근 상태인 남성 무용수가 보여준 점이 좋았다. 두팀 모두 막상막하여서 한팀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쉬웠다. <중앙대 교수>

세계적 무용가 배출의 터전으로

발레 김선희



콩쿠르에 참여해 한 장소에서 또래들과의 예술적 다양함을 확인하는 것, 신체의 훈련도를 겨누는 것, 무대에서 최대의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는 등의 경험은 훗날 무대 예술가로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양질의 교육이다.

올해는 발레의 기능적인 면, 예술적인 면에서 교사들의 교육이 많이 달라지고 좋은 변화가 있어 뿌듯했다. 호남예술제를 통한 실천 경험이 한국을 이끌고 빛내는 세계적 무용 예술가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

출연자들 음악 경청 장단점 비교를

국악 서담



개인부의 경우 평균 3~5년 이상 실력을 연마한 우수 학생들이 많았으며 탁월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반면, 국악 특성상 단계별 곡목선택이 자유롭게 않지만 곡 선택에 무리수를 둔 학생들이 많았다.

단체의 경우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데 주안점을 두어 경직된 자세로 확인화된 표현 등에 한계점이 있었다. 자유로운 틀 안에서 각자의 음악을 표출하는 게 필요하다.

본인의 발표 외에 다른 참가자의 음악을 경청하며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남대 교수>

정확한 가사 발음 지도해야

합창 김성국



참가 팀은 적었지만 초등학교 합창 연주의 질적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부정확한 음정을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발음 면에서도 '으' 발음이 '이' 발음으로 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가락의 흐름이나 가사의 내용이 단절되지 않도록 악구 나눔에 더욱 신경 쓰길 바란다.

피아노 반주나 합창에서의 대위 선율의 음량이 너무 커 균형미가 상실되는 팀도 있었다. 지휘 부분도 더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교육대 교수>

초등학생 호흡 등 기본기 주력

관악 박혜란



초등부 저학년 출연자들의 진지한 연주의 모습은 보기 좋았으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초등학교 때는 호흡 소리 스케일같은 기본기에 주력하여 실력을 쌓는 게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이 빠르게 연주해 곡의 세심한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 또한 숨을 아무 곳에서도 쉬어 곡의 흐름을 방해하는 참가자 들이 있었다.

참가자 중에는 음악을 느끼지 못하고 부는 데만 급급, 다이내믹한 변화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신여대 교수>

수준 맞는 곡 정확한 연주가 유익

현악 주윤경



참가자들의 수준은 전통의 예술제에 걸맞게 질적, 양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현악기를 공부할 때는 바른 자세, 정확한 음정과 박자 등 기초적인 테크닉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 중요하다. 일부 학생의 경우 음악성은 뛰어나지만 기초적인 테크닉 부족으로 곡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아쉬웠다.

또한 무조건 높은 수준의 곡보다는 본인의 수준에 맞는 곡을 선정하여 정확하고 완벽하게 연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또 반주는 솔리스트의 연주를 받쳐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었다. <백제예술대학 교수>

초등학생 연주 놀라움 정도 뛰어나

관악 합주 변성호



전체적으로 열심히 준비했음을 느낄 수 있는 대회였다. 관악 합주 및 관현악 합주는 많은 사람이 함께 연주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의 기량이 매년 향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연주는 놀라움 정도로 기량이 뛰어났으며, 악기의 구성에 있어서도 과감한 학교 측의 투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테크닉 위주의 곡보다는 악단의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곡의 선택이 필요할 것 같다. <광신대학교 교수>

열정과 재능 마음껏 펼쳐

그룹사운드 최영화



음악 동아리 활동 중 그룹사운드 분야는 각각의 기량과 표현이 하나의 앙상블을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사회성 함양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번 호남예술제의 그룹사운드 부문은 참가자들의 열정과 재능을 살펴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기성곡 연주에서는 참가자들의 몰론 기량, 창작곡에서는 미래 대중음악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였다. 금상을 수상한 '포이즈'은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보여줬다. <송원대 교수>

뚜렷한 개성·풍부한 감정 표현을

미술 정희남



예술제에 참가한 이들은 하늘, 구름, 산, 바다, 들꽃들이 다른 형태와 빛깔들로 자신을 표현하듯이 똑같은 자연을 어떻게 개성적으로 표현해야 할까하는 고민이 더 있어 아할 것이다. 해마다 열리는 대회이지만 그림이 그 그림이구나 하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새롭고, 이색적인, 독창적 그림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좋은 그림이란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개성이 뚜렷하고, 주제가 확실하며 감정이 풍부해야 한다. <광주교육대 교수>

고등부 작품 수준 크게 높아져

작문 전원범



예년에 비해 작품의 수준이 높아졌다. 시는 새로운 발상과 시적 형상화에 주안점을 두고 썼다. 특히 고등부는 실력이 많이 향상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산문은 생활 경험과 감동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심사를 했다. 초등부는 생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잘 풀어냈으며, 중등부는 신문과 관련된 개인적 체험을 잘 살린 글이 많았다. 고등부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광주가 소중한 삶의 터전임을 살려낸 작품이 눈에 띄어 반가웠다. <광주교육대 교수>

일관성 있고 성숙한 의견 돋보여

논술 이봉형



논술은 창의적 사고력을 드러내는 글쓰기다. 학생들은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과 타인,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글로 정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금상 수상자들은 독서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일관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성숙한 시각도 돋보였다. 반면 고등부는 지난해보다 발전하지 못해 아쉽다. <풍암고 교사>

movies 인기영화 중계를 지금 보십시오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부터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www.entrercinema.co.kr

www.joycbs.com / 1588-7941

www.cinua.co.kr / 1544-0070

www.hamcinema.com / 1588-9120

www.zimuaocinema.com / www.jeokinema.co.kr

메가박스

구.관동역사거리 ♡에매1544-0600

| | |
|----|------------------------|
| 1관 | 강철중(공공의적-1) (15세) 최고급관 |
| 2관 | 강철중(공공의적-1) (15세) |
| 3관 | 해프닝 (18세) |
| 4관 | 툰스데이 - 지구 최후의 날 (18세) |
| 5관 | 쿵푸팬더-자막 (전제) |
| 6관 | 섹스 앤 더 시티 (18세) |
| 7관 | 갯스마트 (12세) |
| 8관 | 강철중(공공의적-1) (15세) |
| 9관 | 인크레더블 헬크 (15세) |

영화 화면 이수하면 강철중과 해피이 날이간다!(~2008.08.31)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다. 영희 광교고체 환승)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액요금 부과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 | |
|----|------------------------|
| 1관 | 쿵푸팬더 (전제) |
| 2관 | 인디아나존스 (12세) |
| 3관 | 인크레더블 헬크 (15세) |
| 4관 | 해프닝 (18세) / 갯스마트 (15세) |
| 5관 | 툰스데이 (12세) |
| 6관 | 혹심모녀 (12세) / 디아이 (15세) |
| 7관 | 강철중 (15세) |

www.entr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육아 목의 주차장 300대 • ♡금로 심야상영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화관역편)

| | |
|-----|--------------------------|
| 1관 | 강철중 (15세) |
| 2관 | 혹심모녀 (18세) / 해프닝 (18세) |
| 3관 | 강철중 (15세) |
| 4관 | 강철중 (15세) |
| 5관 | 인디아나존스 (12세) |
| 6관 | 인크레더블 헬크 (15세) |
| 7관 | 쿵푸팬더 (전제) / 도화선 (18세) |
| 8관 | 툰스데이 (18세) |
| 9관 | 쿵푸팬더 (전제) / 섹스앤더시티 (18세) |
| 10관 | 갯스마트 (12세) |

•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 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상무점: 10개관, 해남점: 4개관

상무점: 15:00~22:00, 해남점: 15:00~22:00

씨너스 전대

북구보전초 건너편 ☎ 511-1000

| | |
|----|----------------------------|
| 1관 | 강철중 (15세) / 인크레더블 헬크 (15세) |
| 2관 | 해프닝 (15세) / 섹스앤더시티 (18세) |
| 3관 | 쿵푸팬더 (전제) |
| 4관 | 카르마 (15세) |
| 5관 | 툰스데이 (18세) |
| 6관 | 갯스마트 (12세) |
| 7관 | 강철중 (15세) |

• 매일 심야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네트 사후(연말) 20% 할인

ARS 전화예매 1544-0070

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미포텍스 ☎ 267-7777

| | |
|-----|-----------------|
| 1관 | 디아이 (15세) |
| 2관 | 강철중 (15세) |
| 3관 | 혹심모녀 (12세) |
| 4관 | 도화선 (18세) |
| 5관 | 강철중 (15세) |
| 6관 | 해프닝 (18세) |
| 7관 | 인크레더블 헬크 (15세) |
| 8관 | 섹스 앤 더 시티 (18세) |
| 9관 | 인디아나 존스 (12세) |
| 10관 | 쿵푸팬더 (전제) |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 매일 심야

• 이동통신사 & OK 카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88-5757

• 하미 불꽃장 282-08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영빈관 예약장 261-2000

제일 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 | |
|----|--------------------------|
| 1관 | 강철중(공공의적) (18세) |
| 2관 | 쿵푸팬더 (전제) |
| 3관 | 해프닝 (18세) |
| 4관 | 툰스데이 (18세) |
| 5관 | 섹스 앤 더 시티 (18세) |
| 6관 | 인디아나존스(12세) / 혹심모녀 (12세)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227-1960